

남도장터 올 매출 200억 달성...역대 최대

전남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지난해 동기 비해 7.4배 증가
회원수도 25만명, 800% 늘어
추석 맞아 30일까지 특판행사

996개, 상품수는 1만3352개로 회원수도 25만4000명을 넘어서 지난해 2만 8000명에 비해 무려 800%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확대, 친환경 꾸러미 포인트 지급 등에 힘입어 남도장터 올해 매출액을 당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수정했다.

그동안 남도장터는 입점상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주요 온라인업체 31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유통채널 다각화 및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해 남도장터의 모바일 앱을 오픈해 운영 중에 들어갔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공동구매 캠페인을 펼쳐왔다. 국내 안내양TV 유튜브 방송을 시작으로 '싸게 싸게 남도 맛쇼핑' 등 SNS

홍보를 강화해 '남도장터'의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입점업체의 온라인 판매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등 제작에 업체당 300만원 지원, 제품 홍보를 강화했다. 이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남도장터는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남도장터'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동반성장몰'에서는 오는 23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전남 8개 시군에 소재한 제품을 대상으로 특판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가위를 맞아 30일까지 남도장터 매출액 200억 달성 기념 특판행사를 진행, 알뜰 선물세트부터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총 596개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물 또는 제품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석 특판행사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1인당 30%의 적립금(최대 1만 5천원 한도)을 지급하고, 정부 농산물 소비쿠폰을 함께 사용하면 최대 반값의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그동안 남도장터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힘입어 200억을 돌파해 농어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남도장터 300억 달성을 위해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해 파손 주택 조기 복구 총력

조립주택 77동 설치
주택개량 용자 확대



전남도가 우선 수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임시주거용 주택.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들에 대한 조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택수는 2521동으로, 전파 95동을 비롯 반파 31동, 침수 2395동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27억원(1동당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구레 50동, 담양 19동, 곡성 6동, 함평 2동 등 77동을 설치하고, 추석 전인 오는 21일까지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립주택은 향후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매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건축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수해피해 주택 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받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70동(담양 26동, 구레 17동, 나주 14동, 곡성 13동)을 수해 주민들에게 우선 용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연면적 150㎡ 이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주 19년(또는 3년 거주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을, 증축·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2%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사업은 1가구 1주택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건축행위 중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선정 즉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는 수해를 입은 피해주택에 대해 설계비 50%를 감면하기로 결정, 수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했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수해로 주택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수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숙련도 수질분야

최우수기관 국제 인증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주관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국제 인증서를 획득했다. 연구원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수질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숙련도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수질분야 905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며,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는 차원에서 전 세계 정부기관은 물론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인 인증프로그램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평가 항목인 유기물질·이온류·미생물 등 일반 수질 오염물질을 비롯 금속류·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총 20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 판정을 받아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은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연구원 측정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며 "지속적인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분석기관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국가혁신융합단지 확대 지정 시·군 설명회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최근 나주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국가혁신융합단지 확대 지정에 따른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전남도,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남테크노파크 등의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남테크노파크는 국가혁신융합단지 지구를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 것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국가혁신융합단지 기업지원 현황 및 2021년 예산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 지자체 관계자들과 혁신거점 연계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전남 '귀농산어촌 창업 교육' 이수자 절반 가까이 정착

5년 534명 중 218명 귀농

최근 5년간 전남도가 광주·전남 소재 기업 예비인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교육이수생 가운데 절반 가까이 귀농산어촌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교육 참여자는 총 534명으로, 이 가운데 218명(42%)이 귀농산어촌에 정착했으며, 224명(42%)은 계획중에 있다. 지난해 귀농산어촌 창업과정에 참가한 교육 이수자 106명 중에는 34명(32%)이 이미 농촌에 정착했으며, 59명(56%)은 정착할 지역이나 재배작물 선택

을 고민하며 귀농산어촌을 준비 중이다. 교육 이수자 가운데 13명으로 초기 창업 자금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귀농산어촌을 포기했다.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교육은 광주·전남 기업근무자가 은퇴 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전남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도농가 및 귀농 성공농가 현장 실습과 함께 귀농·귀촌을 위한 마인드 함양부터 농업창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실시돼 참가자들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이라는 교육생의 특성을 감안

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에 실시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창업과정 교육이 지역 내 직장 은퇴자들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고 전남 인구 늘리기에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준비중인 퇴직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를 권역별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교육생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법률지원단 전담팀 11명 운영

전남소방본부는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사망이 공무원 연금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은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상 또는 손직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1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지원단장은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맡기로 했다. 지원단은 변호사가 포함된 법률지원팀과 행정업무 지원할 업무지원팀으로 꾸려진다.

전남소방본부 분석결과 공무원 요양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2014년 19건에서 2019년 40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소방본부는 업무 특성상 각종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전남도는 정원산업 육성과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과 함께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들어간다. 양성교육은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15일과 22일 1·2차로 나눠 2박 3일 동안 20시간씩 진행된다.

1차 교육은 '정원설계 및 조성, 정원관리 방법', 2차 교육은 '정원디자인 이해와

식물생육환경에 따른 정원관리'를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의 정원분야 전문강사로 1차 교육에는 가든스쿨 오로라 주광춘 대표와 팀블리기든 이주는 대표가, 2차 교육에는 오가든스 오경아 대표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강기호 박사가 참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